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295-310
<https://doi.org/10.29212/mh.2022..125.2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6·25전쟁기 군수 분야 연구의 전환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 지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박성진*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에서 2022년 7월 발간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에 대한 서평이다. 전쟁에서 군수 지원은 ‘전쟁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영역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체제를 정면에서 다룬 국내 최초의 종합적 연구 성과로서 군수분야 연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1. 성숙기에 접어든 6·25전쟁 연구와 3세대 연구자

6·25전쟁(1950~1953)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는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으로, 중국은 ‘조선전쟁’(朝鮮战争) 혹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으로, 일본은 ‘조선전쟁’(朝鮮戰爭)으로, 미국은 한국전쟁(Korean War) 혹은 제한전쟁(Limited War)이나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부른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과 별칭의 존재는 6·25전쟁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세계관과 전쟁관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복잡한 국제정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대략 1만 여 편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1990년대에 들어 본격 시작된 6·25전쟁 연구는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는 총론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각론을 파고 들어 심화시키는 뛰어난 후속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¹⁾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논문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들의 출판 편수를 보여주는 <표 1>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중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 편수는 총 1,165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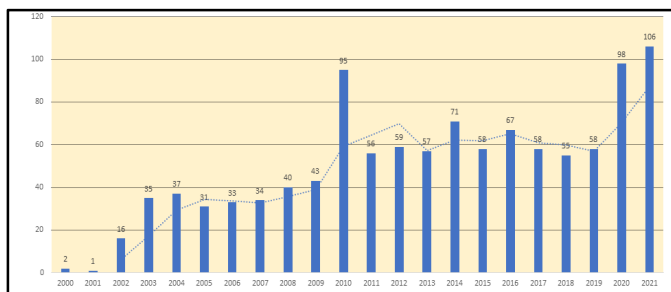
<표 1>에서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의 편수는 10년 주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즉, 2010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논문 편수를 보여준 것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7.2편의 논문이 출판되던데 반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3.4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이는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들어 양적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는 2010년과 2020년이 각각 6·25전쟁

1) 이완범, 「21세기 6·25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현대사 연구의 쟁점』(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p. 125.

발발 60주년과 70주년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회고 반추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들이 여럿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성과들이 학술논문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특히 이러한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개최된 대규모 학술대회들은 6·25전쟁에 대한 각종 새로운 연구주제들과 연구자들이 상호 소통하는 무대로 작동하고 이것이 관련 연구로 확대되는 선순환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표 1> ‘한국전쟁’ 관련 연구논문 수(2000-2022)



* 출처: 한국연구재단, www.kci.go.kr(검색일: 2022.10.17.)

특히 주제의 다변화 측면에서 6·25전쟁 연구를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정치사, 군사사 중심으로 주목받았던 연구들에 더해 사회사, 경제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6·25전쟁 관련 연구 주제로는, 2000년대에는 사회사 및 인류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6·25전쟁이 미친 영향’과 ‘보통사람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전쟁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들어 6·25전쟁 관련 연구의 흐름은 분석 단위가 국가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친족·가족으로 이동했다가 개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적 접근에서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²⁾

이렇듯 10년 주기를 기점으로 한 논문의 양적 증가 흐름은 국내 학계에 새로운 6·25전쟁 연구자 세대의 등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국내의 6·25전쟁 연구자들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우선 국내에서 6·25전쟁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김학준, 김철범, 라종일, 신복룡 등의 1세대 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6·25전쟁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던 시대에 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이들이었다. 이어서 80년대 대학생활을 하며 커밍스(Bruce Cummings)의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 지적 영향을 크게 받은 소위 “커밍스의 아이들”이라 불렀던 박명림, 이완범, 정용욱, 정병준 등의 2세대 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세대 연구자들과의 직접적 연결보다는 일종의 “자율학습”을 통해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³⁾

<표 1>에서 보듯 2000년대 들어 6·25전쟁 관련 연구들의 상당 부분이 이들 2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들 2세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6·25전쟁에 대한 연구 주도권이 미국 학계에서 국내 학계로 넘어오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연구들이 많았다.⁴⁾

2) 이완범, 위의 논문, p. 167.

3) 전상인, 『고개속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 pp. 417-421.

4)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 33집(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6), p. 325.

그렇다면 2010년대 이후 연구를 주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기존의 2세대 연구자들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새로운 세대도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6·25전쟁 3세대 연구자들이다. 2세대 연구자들이 이전 1세대 연구자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은데 반해 3세대 연구자들은 2세대 연구자들과 ‘사제지간’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 3세대 연구자들은 2세대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동원하여 6·25전쟁 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3세대 연구자들 중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를 집필한 이상호이다. 이상호는 2000년 이후 총 13편의 ‘한국전쟁’을 제목으로 한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 수치는 국내 연구자 중 가장 많은 논문 편수에 해당한다. 물론 이 외에도 이상호는 6·25전쟁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2000년대 초반 ‘맥아더’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이를 현장에서 집행했던 실전부대들, 그리고 소년병에 이르는 주제들로 변화했다. 이는 앞서 거론했듯 6·25전쟁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학술지가 다른 아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軍史』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軍史』는 총 52편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다음으로 29편을 게재한 학술지가 『사회와 역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학계에서 6·25전쟁 관련 연구의 중심에 『軍史』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쟁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군수

인류가 벌인 수많은 전쟁들에서 군수 문제는 전쟁의 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문제로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전세를 뒤바꾼 북아프리카의 엘 알라메인(El Alamein) 전투에서 몽고메리(Sir B. L. Montgomery)의 영국군에 참패한 롬멜(Erwin J. E. Rommel) 장군이 패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든 것도 보급의 문제였다. 그는 “군대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째 요건으로서는 무기와 연료 그리고 탄약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격이 개시되기 전에 보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⁵⁾고 언급하며 당시 독일군이 보급에서 이미 영국군에 패했음을 시인한 바 있었다.

특히 군수는 군인들의 사기 및 전투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의 극명한 사례들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개전 당시 3일치 보급품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병들에게 보급된 전투식량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2002년까지로, 20년이나 지난 보급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군수품 보급에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냈다.⁶⁾ 그 결과 10월 현재 러시아군은 전

5) 리델 하아트(編), 황규만(譯), 『롬멜戰沙錄』(서울: 一潮閣, 1979) p. 438.

세계 군사전문가들 대부분의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의 전투력을 보여주며 패배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6·25전쟁기의 군수는 어땠을까? 바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가 당시 군수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6·25전쟁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6·25전쟁의 발발과 유엔군사령부 및 전쟁기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실제기구인 부산군수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의 창설과 운영을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유엔군 군수지원 실태와 현황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각종 주요 물자별로 정리했으며, 특수물자지원은 각각의 기술병과 부대별로 정리했다.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가 가진 장점은 군수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연구들이 한국군 중심으로 혹은 분야별 군수지원 내용만으로 파편적으로 언급되거나 부분적으로 기술되었지만, 이 책은 군수지원체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종합 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기 군수에 대해 조직 체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전쟁 국면별·시기별 체제의 변화를 일괄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 지원 전반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즉 6·25전쟁기에 설립되었던 일본군수사령부, 부산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특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의 구성 중 특기할만한 부분은 분야별 군수지원 마지막에 웨스트오버(John G. Westover)의 『한국에서의 전투지

6) 정철환, 「20년 지난 전투식량 배급... 제트기엔 구식 무기 장착」, 『조선일보』 2022년 3월 10일자; 박주경,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전략연구』 87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원』(Combat Support in Korea)에 실린 구체적 사례들을 실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군수 지원 체제의 실제 사례들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론과 현실을 동시에 제공하여 군수분야에서 6·25전쟁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어 6·25전쟁기 군수지원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체제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부산군수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
영문명	Pusan Logistical Command	Japan Logical Command	2d Logistical Command	3d Logistical Command	Korean Communications Zone
편제시기	1950.7.11	1950.8.25	1950.9.19	1950.9.19	1952.7.10
해체시기	1950.9.19	1952.10.1	1952.10.16	1953.3.19	1955.6
임무	주한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품의 수령·보관·지급	일본에서 미 제8군·공군·해군에 대한 군수지원, 일본 내 항구 등 시설 운용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제10군단 지원	북위 37도 이남의 후방 지역에 대한 책임 및 주한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
소속	제8군 예하 B형 군수부대	극동군사령부 예하	제8군 예하 C형 군수부대	제8군 예하 B형 군수부대	극동군사령부 예하
기타			부산군수사령부 개편	1950.12 제2군수사령부에 흡수 통합	1952.11 제2군수사령부 흡수

3. 6·25전쟁기 군수 지원의 특징

6·25전쟁기 군수 지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군수지원이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국군이 처한 현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모순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6·25전쟁 개전 당시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전쟁에 대비한 군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대비한 군수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음에도 미군의 군수지원이 개전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일미군의 존재 때문이었다. 더불어 당시 북한군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보급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쟁의 침략자인 러시아와 북한 모두 수도 키이우와 서울을 3일 내외의 최단 기간에 점령해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침공 시작 12시간 안에 키이우를 점령하고 72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예상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 9시간 만에 키이우 북부를 점령하기도 했다.⁷⁾ 6·25전쟁에서 북한도 6월 27일 밤 11시 북한군 3사단 9연대가 서울에 입성하여,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고, 곧이어 남한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7) 정윤영, 「우크라 국방 "러軍, 침공 12시간 안에 우크라 점령할 줄 착각"」 (2022.6.16.), <https://www.news1.kr/articles/?4714441>(2022년 10월 20일 검색)

우크라이나와 남한이 수도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에 임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두 전쟁 모두 서방과 미국의 신속한 군수 지원으로 전황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군수지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맞닥트린 상황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군보다도 더 열악했다. 당시 한국군은 식량과 피복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자 및 장비, 탄약, 유류 등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전 초기에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 신속하게 참전했고 군수분야에서도 그 대응이 놀랄 정도로 빨랐다. 개전 10일 간 이루어졌던 미국의 군수지원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6·25전쟁 발발 직후 10일 간 미국의 군수분야 대응(6.25-7.4)

시기	내용
6.25	주한미군사고문단, 맥아더사령부에 곡사포, 박격포, 소총, 탄약 등 요청
6.25-6.26	요코하마(横浜) 이케고(池子) 병기창 보관 탄약 1천 6백 톤 및 각종 포를 수송선 키슬리에 적재 작업 진행
6.27	주한미군사고문단장→미8군사령관, 탄약, 로켓포, 철갑탄, 포탄 요청
6.28	미공군 119톤의 각종 탄약과 포 등을 부산으로 수송
7.1	수송선 키슬리, 부산항 도착
7.4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부산기지사령부 설치

개전 후 2일째와 3일째에 대규모 탄약과 곡사포 등이 미 공군과 해군에 의해 부산으로 수송되었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군 10만 명과 군수품 2백만 톤이 한국으로 수송되었다. 군수품 조달을 위해 일본 병기창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탄약과 무기를 한

8)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pp. 639-641.

국으로 수송하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군수품의 긴급 구입이 이루어졌다. 미군이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 보급을 위해 최초로 구매한 품목은 제8군 통신반에서 요구했던 칼이었다.

당시 미국의 해외 지역에 대한 이러한 신속한 군수 지원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이는 당시 미 육군 제2사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50년 7월 8일 본토에 주둔하고 있던 2사단은 한국 파병 명령을 받자, 병력 충원과 장비 보급 및 선적을 거쳐 8월 8일 2사단 제9연대가 북한군과 한국에서 최초로 조우했다. 2사단이 해외 파병 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개월 만이었다. 이 사례는 1953년까지의 미육군사에서 완편된 보병 1개 사단이 미 본토 주둔지에서 해외 전선까지 가장 빨리 파병된 사례에 해당했다.⁹⁾

둘째, 6·25전쟁에는 그 이전의 군수 지원이나 보급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혁신적 제도들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적용되었다. 6·25전쟁은 국가총력전으로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미국의 군사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는데, 특히 군수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기 처음 등장한 연합군의 병참지대(Communications Zone) 개념이 처음 적용되었던 곳이 바로 6·25전쟁이었으며, 그 결과가 1952년 7월 창설된 한국병참지대(Korean Communications Zone)였다.

한국병참지대는 한반도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후방지역에 대한 책임과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 책임을 맡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병참지대가 담당하는 ‘후방’이 가진 의미였다. 여기에는 후방의 치안유지, 전쟁 포로 및 피난민 보호, 한국 정부와의 정치·경제 문제 논의, 주한미대사관과의 연락, 유엔

9)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Army Logistics 1775-1953*(Office of the Chie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p. 618-620.

한국재건단 및 유엔한국민사지원단의 활동 지원 등의 대단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들이 해당하는데, 이들 사안들은 북위 37도 이남 지역에서 전투 이외의 모든 사안을 한국병참지대가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수송 분야에서에서도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든 군수품들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통합 수송하는 ‘코넥스’(CONEX, Container Express) 제도가 대표적 사례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군수품 수송에 일정 규격화된 팔레트(pallet)가 사용되었지만 한국전쟁에서 도입된 컨테이너는 이전보다 더 많은 효율성과 수송량을, 더 빠른 시각에 하역할 수 있는 군수품 수송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당시 극동군사령부는 대규모 군수품을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코넥스 박스에 군수품을 싣고 수송선과 육군 표준형 트럭에 수송하는 개념을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험했고 이를 1952년 11월 미국 본토에서 극동지역까지 실제로 수송하는 체제에 적용했다.

셋째, 6·25전쟁기 한국인 노무자들의 활약을 들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부산항까지 수송은 미국이 전담하며 미국의 해상운송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에 하역해서도 열악하기는 했지만 도로나 철도가 개설된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산악지역이나 보급선이 끊기거나 차단된 곳까지 군수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6·25전쟁기 보급품 수송의 최전선에 있던 이들이 바로 한국인 노무자들이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활동에 대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수품 수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전방부대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사는 대대 단위로 준비되며, 지프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전방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소총병들이 있는 진지까지 등짐으로 운반한다.”(141쪽)

“한국인 노무자들로 구성된 긴급 선로 복구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선로 상태를 점검케 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특수 장비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선로를 복구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이 어떻게 선로를 복구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인 노무자들은 선로 복구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전쟁 내내 철도 운행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216쪽)

공식·비공식 인원을 포함해서 한국인 노무자들은 최대 30만 명 정도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들이 군수지원체제의 최말단에서 활동하며 전쟁을 지원했다. 이들의 활약에 대해 8군 사령관 밴 플리트(J. Van Pleet)도 한국인 노무자들이 “칭송받지 못한 6·25전쟁 영웅들”(unsung heroes of the war)로 전쟁의 굵은일을 도맡아 놀랄만한 힘과 끈기를 보여주었다고 회고한 바 있었다.¹⁰⁾

10) 신복룡, 『한국사에서의 전쟁과 평화』(서울: 도서출판선인, 2021), pp. 642-650.

4. 향후 과제

6·25전쟁 연구는 최근 들어 그 방법과 주제 면에서 다양해지고 연구자 수도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해왔다. 이는 무엇보다 6·25전쟁 2세대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학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6·25전쟁 연구를 이끌어온 상당수의 2세대 연구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향후 한국현대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감소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상호를 비롯한 3세대 연구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나온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는 군수 분야에서 6·25전쟁 연구의 전환점으로 삼을만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기 군수분야 연구가 파편적·개별적으로 이어졌다면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는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는 한편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6·25전쟁기 군수분야 연구는 당시의 물류시스템 및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군수산업 혹은 군수체제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만일은 6·25전쟁기 미군해상수송지원단(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MSTS)에 대한 연구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에 접어들었던 미국의 해운업에게 ‘한국전쟁의 발발은 행운이었다’고 언급하며 냉전체제에서 MSTS가 한국에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

이었다고 보았다.¹¹⁾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국 주도의 군사네트워크에 한국의 군수산업 혹은 체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향후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에는 비교사적 연구 및 해외학계에의 긴밀한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별 혹은 전투별 군수 보급 문제도 앞으로 천착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6·25전쟁기 벌어진 여러 전투나 항구에서 이루어진 군수 지원에 대한 연구는 전쟁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윤미가 다룬 6·25전쟁기 부산항 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와 다부동 전투에 대한 군수지원 연구를 다룬 조봉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윤미는 전쟁 초기 군수품 하역항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산항이 점차 시설을 갖추어가면서 미군의 해상물류시스템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¹²⁾ 또한 조봉휘는 당시 1만 여 명의 민간인 노무자들이 식량 및 탄약 보급에 동원되어 다부동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¹³⁾ 또한 최근 6·25전쟁 연구의 흐름 중 하나는 지역 차원의 6·25전쟁 연구이다.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2020년 6월 19일에 개최한 「한국전쟁기 전라도지역과 지역민」 학술대회¹⁴⁾나 『6·25전쟁과 철원』¹⁵⁾ 등도 지역 차원에

11) 서만일, 「한국전쟁시기 미국의 해상운송체계와 상선: 미군해상수송지원단(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권 1호(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p. 50.

12)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연구』 70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2).

13) 조봉휘, 「6·25전쟁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14)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의 호남지역 점령과정과 여수순천학도병」(임송자), 「한국전쟁과 전남지역 기독교 연구」(윤정란), 「한국전쟁기 전라도 지역의 빨치산 토벌」(노영기), 「한국전쟁기 전라도 지역 민간인학살」(정찬대) 등 4편이었다.

15) 태봉학회·한국군사사학회·철원군, 『6·25전쟁과 철원』(서울: 주류성출판사, 2020).

서 6·25전쟁을 조망하는 연구들이다. 군수와 관련해서는 6·25 전쟁기 핵심 항구였던 부산이나 인천의 역할이나 이 지역에서 군수 보급이 미친 영향 등도 주목할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앞서 한국인 노무자가 6·25전쟁에서 활약한 것처럼, 직접 전투에 종사하지 않은 개인들의 시각을 통한 6·25전쟁 경험들도 군수분야 연구에 앞으로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군수분야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무자들이나 여성 그리고 소년들의 목소리는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해줄 것이다. 최근 권현익이 출간한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도 그 간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가족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전쟁을 조망하는데, 이 연구도 ‘보통사람들의 6·25전쟁 바라보기’라는 연구 흐름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⁶⁾ 현재 까지 국내의 6·25전쟁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보다 발전해왔고, 그 연구주제들도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그러나 점차 국내의 인문사회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6·25전쟁 연구는 이상호를 비롯한 3세대 연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연구주제와 시각을 통해 6·25전쟁의 다양한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16) 권현익(저), 정소영(역),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창비, 2020).